

平和裡에 合同될 것이다.

[新民] (1928년 7월호)

(註: 滿洲 東三省을 統治하던 大元帥 張作霖이

1928年 今月 日本軍에 依하여 爆死한 後

그 歸趨에 대한 說問에 答한 글)

今後의 東三省이라면 卽 張作霖 死後의 東三省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疑心할 것도 없이 國民政府와 合同될 것이다. 東三省 自體로 보아도 國民政府를 背景으로 하여 모든 解決을 짓는 것이 適合할 것이오, 國民政府나 또는 一部 東三省 當局者의 利害로 보아도 合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一部에서 宣傳되는 張學良을 推戴하여 東三省 獨立 云云하는 것은 처음부터 問題가 되지 않나니 大部分이 漢族인 東三省의 民衆이 反對할 것이며 張學良 自身도 그 頭腦가 張作霖과는 다를 것이니까 언제까지나 東三省이 張氏의 것일 것이라는 迷夢에서 헤멜 理는 없을 것이다. 그 合同하는 經路는 吾人의 豫想보다는 꼭 平和와 妥協裡에 進行될 것이다. 郭松齡을 犧牲하던 그 쓴 經驗에 비추어 奉天軍이 對南軍과는 絶對로 戰爭을 避할 것이오, 國民軍도 亦是 對奉天軍 挑戰으로써 問題의 解決을 바라지 않을 點에서 兩方이 戰火의 不利만은 깨달았을 것이니까……. 그리고 東三省의 今後에 對하여 列國의 態度는 如何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도 그들이 平和裡에 合同하는 데 대하여는 다시 干涉의 餘地가 없을 것이며 干涉해 본대야 別 수가 없을 것이다. 東三省이 國民政府에 合同하는데 影響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 東三省에 가장 많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日本일 것이다. 日本이 이것을 考慮하여 合同에 대한 直接 或은 間接으로 中止 或은 妨害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日本도 亦是 大勢에 背馳하여 이런 일을 할 理도 없을 것이오 日本으로서도 滿洲에 概說한 特殊利權만 保障되는 限度에서 彼此 好意로서 合同을 贊成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萬一 日本이 合同을 妨害하기 위하여 어떤 干涉을 取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東三省 當局者로 하여금 日本 때문에 合同을 促進하는 奇現象을 볼 것을 日本은 覺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